

#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Two Towels, Chromogenic print, 81.3x101.6cm, 2005

지난 7월 16일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는 알렉 소스(Alec Soth)는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시적(時的) 인것의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어야 할 인물이다. 알렉 소스는 매그넘의 일원이자 워커 에반스, 스테판 쇼어, 윌리엄 이글스톤으로 이어지는 '아메리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American Street Photography)'의 계보를 잇는 작가.

낮선 도시에서 마주친 일상의 단면을 진부하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로 재 탄생시키는 데 재능을 발휘해온 그는 특히 건조해 보이기 쉬운 다큐멘터리 사진에 특유의 시적(時情)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아왔으며, 박찬욱 감독 역시 자신의 영화 <박쥐>를 만들며 알렉소스 작품이 지닌 이미지를 상당 부분 참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가 생각 하는 가장 심오한 아름다움은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아름다움"이라 말하는 알렉소스는 사실 전달을 특성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허구의 대상과 내러티브를 가미해 사진 예술의 새로운 시각적 미(美)를 창조해 낸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2년이 넘는 동안 나이가가라 폭포 주변을 관찰하면서 그곳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로맨스를 담아낸 <Niagara> 시리즈, 작가가 콜롬비아 아기를 입양하는 광장에서 보고타의 일상 풍경과 어린 딸에 대한 애정을 담아낸 <Dog Dats, Bogota> 시리즈 33점이 소개된다.



Untitled 29, Bogotá, Chromogenic print, 50.8x50.8cm, 2007

Neighbor 글 강인욱/ 에디터 윤은정